

한국어 학습 사전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이동은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어 교육학 분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교육 현장으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학습자 중심의 교육적 과제들이 수행되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학습 사전이다. 더욱이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이 완간된 해가 1999년이라는 점을 돌이켜 보면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서 안게 된 한국어 학습 사전 개발의 과제들은 더욱 의미가 깊다.

조남호 외(2003)의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는 학습 사전의 편찬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 연구 결과는 많은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에 의해 교재 및 부교재의 개발, 평가 등에 활용되어 왔다. 또한 학습 사전을 다룬 논문들에서는 주로 학습자들의 요구와 연구·개발의 성과 및 개발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이후 다양한 사전들의 연구·개발과 그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홍종선(2012)에서는 전산 매체 사전을 고려하며 올림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올림말의 범위는 사전의 사용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초급 사전은 소규모이므로 5,000개 미만의 어휘를 올림말로 하여 뜻풀이와 용례를 자세 히 설명하는 방안이 있으나, 초급 학습자들은 학습어의 단일어 사전 이용에

매우 서투른 점을 감안해 모국어 이중어 사전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중·고급 학습자 사전은 일반적으로 4~6만 개의 올림말을 상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학습자 사전이 본격화하여 분량과 전문성을 갖추려면 대사전으로 편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중어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학습 효과가 낫다는 보고가 우세하나, 훌륭한 이중어 학습자 사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정보가 풍부하게 집대성된 단일어 학습자 사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어 학습자의 사전 이용 실태를 보고한 이은경(2015)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현재 가지고 있는 사전은 앱 사전(59%), 종이 사전(19.5%), 전자사전(14.2%)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주로 이용하는 사전은 앱, 인터넷 사전이 79.3%로 가장 많으며 전자사전이나 종이 사전은 적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전의 사용 이유는 검색의 편리성, 휴대의 편의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셋째, 사전 검색 정보를 조사한 결과, 의미가 45.5% 정도로 이해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을 위해서는 자국어-한국어 대역 사전을,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어-자국어 대역 사전을 상대적으로 많이 검색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논의의 중심은 한국어 실력과 사전 이용 횟수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실제적 과정이 보고된 강현화·윌미진(2015)에서는 《한국어기초 사전》 편찬의 원리와 실재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 사전은 2010~2012년 집필된 규모 5만 단어의 한국어 학습 사전으로 다국어 대역 사전이며, 표제어와 뜻을 번역한 반(semi)이중 언어 사전 형태이다.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모든 내용을 번역으로 제시하는 이중 언어 사전 형태보다는 반이중 언어 사전 형태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편찬 절차에 있어서, 1) 학습자의 요구와 사전 사용 환경 분석, 2) 표제어 선정 및 사전 모형 개발, 3) 표제어 기술 일관성, 체계성 확보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구축 말뭉치

가 문어 자료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표제어의 선정 시 기준 정하기 및 이중 언어 전문 인력 확보를 개발 과정의 어려움들로 들었다.

한국어 학습 사전이 백화제방(百花齊放)식으로 개발되는 시점에서 성과들의 편차에 주목한다면 다음의 향후 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첫째,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학습 사전들이 학습자 문어 말뭉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표제어 목록의 측면에서 구어 말뭉치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및 활용 연구에서 구축된 문어 및 구어 말뭉치에 대한 교육 연구자들 간의 공유 및 활용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학습 사전의 꾸준한 수정 보완을 위한 협력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학습 사전의 편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편찬 경험에 대한 기록의 공유는 보다 친숙하고 활용도 높은 다양한 사전의 편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학습 사전 자체의 수정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데에도 관건이 된다. 한국어의 언어 현실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이 일은 사전 작업 관련자 모두의 몫이라고 본다.

셋째, 인접 분야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학제적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목적에 부응하는 다채롭고도 흥미로운 사전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습자 모어(현지어)와 한국어의 숙달도가 높은 이중 언어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이 사전 편찬에 참여한다면 학습 사전의 엄밀성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